



광주도시공사, 가정의 달 직원 격려 행사

광주도시공사는 지난 8일 가정의 달을 맞아 직원 20명에게 격려 인사와 기념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사진)

이번 행사는 초등학교에 입학한 자녀, 만 19세가 된 성년 자녀, 80세 이상 부모를 둔 직원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행사에 참여한 직원들은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 번 생각해보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날 전달된 기념품은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가족을 위한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자 마련됐다.

김승남 사장은 “이번 격려 행사가 따뜻한 가정의 달을 보내는데 작은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일·가정양립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으로 가족 친화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광주도시공사는 임직원 일가정 양립 정책의 일환으로 ‘CEO가 챙기는 특별한 기념일’, ‘시민참여형 지역청년 진로찾기 드림 콘서트’ 등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최권범 기자



광주경총, ‘트럼프와 혼돈의 시대’ 강연 성황

광주경영자총협회는 지난 9일 홀리데이인 광주호텔에서 서상영 애널리스트를 초청해 ‘트럼프와 혼돈의 시대’를 주제로 제 1684회 금요조찬 포럼 특강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진)

이번 특강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진행형 관세정책 문제점과 AI 관련 산업을 집중적으로 강연해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강연은 트럼프 2기 무역관련자 영향력 및 권한, 무역분쟁과 한국의 영향, 경제 및 환율, AI 산업과 주식시장, 채권과 상품시장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양진석 광주경총 회장은 “트럼프의 관세 등 경제정책, 중동 불안 등으로 인해 여전히 불확실성이 짙은 상황에서 AI 산업은 이제 시작”이라며 “2030년까지 AI 관련 산업의 이익이 현재의 10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면서 회원사 및 참석자들이 관세 등 설비투자 대응 방안을 모색한 자리였다”고 말했다.

최권범 기자



광주세관, 5월 ‘으뜸 광주세관인’에 오도형 주무관

광주본부세관은 5월 ‘으뜸 광주세관인’으로 오도형 주무관을 선정해 포상했다. (사진)

오도형 주무관은 집중 현장점검과 정보분석을 통해 국제무역선 무단승선 및 선용품 무단 적재를 적발해 항만 질

서 확립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광주본부세관은 매월 탁월한 업무 성과를 창출하고 기관의 명예를 드높인 ‘으뜸 광주세관인’을 선정·포상하고 있다.

최권범 기자

‘더 글로리’ 감독 차기작은 일본 드라마…한일합작 속속

일본어가 서툰 한국 배우가 일본 지상파 드라마 주연을 맡고, 술한 화제작을 탄생시킨 스타 한국 감독이 차기작으로 일본 드라마를 선택한다. 국내 유수의 제작사들은 일본 방송사와 손잡고 한일합작 드라마를 제작하고 있다.

11일 방송가에 따르면 한국과 일본의 창작자들이 활발한 협업을 이어가며 새로운 창작물을 속속 내놓고 있다.

오는 6월, 7월, 8월에 각각 일본 드라마를 한 편씩 공개하는 CJ ENM 산하 제작사 스튜디오드래곤이 대표적인 사례다.

스튜디오드래곤은 tvN 드라마 ‘내 남편과 결혼해줘’를 리메이크한 일본 판을 아마존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프라임비디오를 통해 6월27일부터 공개할 예정이다.

드라마 ‘더 글로리’, ‘비밀의 숲’을 만든 안길호 감독이 연출을, ‘1리터의 눈물’을 쓴 오오시마 사토미가 극본을 맡았다.

총 10부작인 일본판은 한국 드라마를 그대로 리메이크하기보다는, 웹소설 원작 줄거리를 토대로 현지 정서에 맞게 각색했다. 고시바 후우카와 사토 다케루가 주인공으로 등장한다.



CJENM은 앞서 일본 5대 지상파 방송사 중 하나인 TBS그룹과 업무협약을 맺고 2027년까지 3편 이상의 지상파 드라마와 2편의 영화를 공동으로 제작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스튜디오드래곤은 7월 중 TBS와 합작한 일본 드라마 ‘하츠코이도그즈’를 방송할 예정이다.

8월에는 스튜디오드래곤의 자회사 지티스트가 제작한 일본 드라마 ‘소울메이트’가 넷플릭스를 통해 전 세계에 공개된다.

JTBC 드라마 ‘이태원 클라쓰’, ‘SKY 캐슬’ 등 리메이크 판권을 판매하며 협력을 지속해온 SLL과 TV아사히는 이번에 오리지널 드라마 ‘마물’을 공동 제작했다.

JTBC ‘옥씨부인전’을 만든 진혁·최보운 PD가 1~2화 연출을 맡았고, SLL 산하 레이블 퍼펙트스톰필름에서 시나리오 작업을 했다.

연합뉴스



광주시, 송정역서 ‘식품안전의 날 캠페인’

광주광역시시는 ‘제23회 식품안전의 날’ (5월14일)을 맞아 지난 9일 광주송정역 광장 일원에서 ‘식품안전의 날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11일 밝혔다. (사진)

이번 캠페인에는 광주광역시, 5개 자치구,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한국의식업중앙회 광주구지부 등 관계기관이 참여해 광주를 찾은 방문객과 시민을 대상으로 식품안전의 중요성과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홍보했다.

참여기관들은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한 3대 위생수칙 △나트륨 줄이기 실천 △건강하고 낭비없는 식문화 실천 △음식점 위생등급제 홍보 등 다양한 정보를 전달했다.

특히 “2025 광주 방문의 해”를 맞아 ‘맛의 도시 광주’의 위생적이고 청결한 이미지 제고를 위해 시민 참여를 적극 유도했다.

배강숙 건강위생과장은 “식품 안전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지속해 안전한 식생활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정상아 기자



광주 광산의회, 국립5·18민주묘지 참배

광주광역시 광산의회는 지난 9일 ‘제45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을 맞아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했다. (사진)

이날 참배는 민주 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민주정신 계승 의지를 되새기기 위해 마련됐으며, 김명수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과 의회사무국 직원 등 25명이 참여했다.

김 의장은 방명록에 “위대한 광주 시민이 다시 한번 민주화를 지켰습니다. 숭고한 오월 정신으로 미래를 향해 나아가겠습니다.”라는 다짐을 남겼다.

참석자들은 추모탑에서 헌화와 분향을 시작으로 묵념의 시간을 갖고, 묘역 등을 순회하며 민주영령들을 추모했다.

김 의장은 “민주영령들의 숭고한 희생 덕분에 오늘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바로 세길 수 있었다”며 “그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올바른 자유와 정의의 가치를 실현하며 온전한 민주주의의 역사를 완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상철 기자



광주 북부경찰, ‘2025 녹색어머니회’ 발대식

광주 북부경찰은 지난 8일 오전 북부경찰서 2층 소통마루에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2025년 광주 북부 녹색어머니회’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진)

이날 발대식에서는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유공 회원 감사장 수여 및 임원진 위촉장 수여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북부 녹색어머니회는 초등학교 등·하굣길 교통캠페인 등 어린이 교통안전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북부경찰 교통과 관계자는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녹색어머니회에 감사하다”며 “교통약자인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과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승우 기자



광주 동부경찰, 조선대서 성범죄 예방캠페인

광주 동부경찰은 지난 8일 조선대학교 장미원 일대에서 경찰행정학과 학생들로 구성된 ‘여성안전 MZ서포터즈’와 함께 성범죄 근절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사진)

이번 캠페인은 디지털 성범죄와 마약류 이용 성범죄 등 점차 지능화·고도화되는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예방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조선대 장미축제를 찾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이 이뤄졌다.

또한 가정폭력, 아동학대,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 예방과 청소년 선도·보호를 위한 캠페인도 병행해 시민들의 관심을 모았다.

김중호 동부경찰서장은 “최근 성범죄가 더욱 디지털화·지능화되는 만큼,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준명 기자

“1월 사귀고 4월 혼인신고” 이상민, 재혼 뒷얘기

혼성그룹 ‘룰라’ 멤버 겸 방송인 이상민이 10세 연하 아내와 재혼한 뒷얘기를 털어놴다. 이상민은 아내와 결혼식 없이 지난달 30일 혼인신고를 했다. (사진)

이상민은 10일 방송된 JTBC 토크예능물 ‘아는 형님’에서 아내에 대해 “작년 7, 8월에 처음 알게 됐고 첫 눈에 반했다. 너무 예뻐서 ‘연예인 하셨어야 될 분인데’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아내는 일반 직장인이라며 올해 1월부터 사귀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상민은 “당시 ‘가족도 없는데 꾸준히 일을 하면서 내가 견뎌야 할 목적과 이유가 뭘까’라는 생각에 번아웃이 찾아왔다. 그때 이전에 주고 받은 명함을 보고 연락을 했다”며 만나게 된 계기를 부연했다.

결혼식을 하지 않기로 한 건 아내가 원해서였다. 이상민은 “연휴 기간 동안 아내의 가족들을 만났다. (결혼 허락을



위해) 장인 어른, 장모님을 찾아 뵈었을 때 생각보다 나를 너무 좋아하셨다”고 웃었다.

아내의 조카들은 자신들을 보자마자 “왜 아저씨는 아는 형님에서 한마디도 안해요?”라고 물었는데 “참는 것도 하나의 일이란다고 했다”고 너스레를 떨었다.

지난 1994년 룰라로 데뷔한 이상민은 2004년 가수 겸 배우 이해영과 결혼했으나 1년2개월 만에 합의 이혼했다. 이후 사업 실패로 막대한 빚을 떠안은 이상민은 최근 69억7000만원의 빚을 전부 청산했다.

뉴스스